

미완의 청년작가들 응원합니다 1년 통째로 전시장 내준 갤러리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제4회 신인작가 기획전' 공모에 선정된 작가들. 왼쪽부터 이재호, 서영기, 정다운, 윤준영, 김수진, 나지수, 안지현, 박다혜, 이혜리, 김설아. <로터스 갤러리 제공>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제4회 신인작가 기획전'

- 35세 미만 작가 10명 선정
- 2월부터 한달씩 개인전 지원
- 정다운 작가 29일까지
- '우주소녀...' 주제 30점 전시



정다운 작 '우주소녀'

선정작가 중 가장 막내이자 생애 첫 개인전을 열게 된 나지수 작가는 "내 작품만으로 전시를 열어 남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이 많이 된다"며 "전시 잘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 기획에 참여한 김희랑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는 "공모에 작가 40여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작품 수준보다는 신선함, 실험정신, 젊음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릴레이 신인작가전 첫번째 주자는 정다운 작가다. 높은 부담감 때문에 작가들이 첫번째 전시를 꺼리는 상황에서 비교적 경험이 많은 정씨가 나섰다. 29일까지 '우주소녀-새로운 지평을 향해'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 정씨는 여고생이 등장하는 생기발랄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어렸을 적 봤던 애니메이션 속 여고생 영웅과 우주를 소재로 '홀리로저스', '큐리오시티', '달빛의 소녀' 등이 출품됐다. 여고생이 개를 꼭 끌어안고 있는 작품 '라이카'는 1957년 지구생명체로는 최초로 우주에 가본 러시아 개 라이카를 소재로 했다.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현재도 우주 여단가를 떠돌아 다니고 있을 라이카를 향해 작가는 "죽어서 만난다면 꼭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씨는 전남대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을 졸업했고 지난 2013년 광주극장 '명화코스프레', 2015년 금호갤러리 '우주소녀' 등 개인전을 열었다.

정학 스님은 "지나해까지는 추천과 공모를 번갈아가며 청년작가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공모전 형식으로만 진행할 계획이다"며 "신인작가는 약 5~6명 정도만 선정해 중견작가들에게도 전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의 062-383-00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면 깊은 곳에서 건네는 희망과 위로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 29일까지 올 첫 전시회 '심연'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가 '심연(深淵)'을 주제로 5일부터 29일까지 올해 첫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민지, 김여진, 박정일, 이태희, 장예슬, 최나래 등 지역 작가 6명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심연에 대한 각자의 시각을 보여준다.

김민지 작가는 호박을 소재로 했다. 작가에게 호박은 좌절, 분노, 우울 등 감정을 시각화한 상징물이다. 호박과 자신을 동일시해 감정을 분출하고 순화하는 분위기를 전한다.

김여진 작가는 에벌레의 탈피를 향한 고된 여정과 만충도 속 화려한 나비를 통해 생명의 송고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 강인한 나무뿌리와 우거진 숲을 그린 작품을 통해 원시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일은 몽환적인 새를 통해 고난과 비극을 극복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이태희는 작품 속에서 경계에 대한 강박을 보여준다. 화면을 구성함에 있어 공간분할에 집중했다.



장예슬 작 '붉은 꽃'

장예슬은 한국화가 전공이지만 수목 대신 채색 기법을 활용해 화훼를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채색은 한국적 특색이 뚜렷하고 행복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 연임 "자립 역량 키우겠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27대 회장에 하철경 현 회장이 단독 추대돼 연임됐다. 하 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한국예총은 2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4년의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이자 한국미술협회 고문으로 2012년부터 한국예총 회장을 맡고 있다.

하 회장은 "수익 사업을 발굴해 한국예총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각종 법제화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진도 출신인 하 회장은 목포대학교 미술학과와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미협 이사를 역임했다. 프랑스 파리문화원, 뉴욕 퀸즈미술관, 독일 코테연구소 등에서 전시를 열었고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1999년), 전라남도 문화상(1999), 한국예총평론가협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2013) 등을 수상했다. 수석부회장은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이, 조강훈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승정 전남예총 회장 등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2월 행사 '시인과 꽃'

12일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성악가 윤승환 초청

'잔설 위에 핀 노루귀 두 송이 시집 속에 넣어 보낸 시인이 있네 봄 들어 제일 먼저 만난 꽃이라고 사진 찍어 책갈피에 넣어 보냈네 목은 담불 잔설 위로 어린 꽃대궁 봄 들어 제일 먼저 시인이 본 꽃꽃을 보내 봄을 보내 시 보다 먼저 봄을 주고 싶은 시인의 마음을 보내'

한여선의 시 '시인과 꽃'은 한겨울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이 담긴 작품이다. 이 시에 작곡가 오숙자씨가 곡을 부친 '시인과 꽃'을 함께 배우고 부르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 2월 행사 '시인과 꽃'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대를 거쳐 베르디 국립음악원 박사 과정을 졸업한 테너 윤승환이 신작가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와 경기 민요 '박연폭포'를 들려준다. 또 박만수, 정경숙, 김종석, 정혜경, 장흥식 등 회원들이 '속대', '눈', '진달래꽃', '하늘 보다 높은 사랑',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부르며 봄나루 연주로 김수아(금호중앙중 1년)양이 '코스모스를 노래함'을 선사한다. 그밖에 '고향의 봄', '오빠 생각', '나물 캐는 처녀' 등 우리에겐 친숙한 가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이 마련된다.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대한민국은 지금 복고열풍

추억을 타고 번지는 복고 트렌드

새롭게 부르는 '그때 그 노래'
'온몸으로 읽는다' 그들은 필사 중
애호가들과 '만장의 LP' 나누는 DJ 박태진씨

설 기획
산지애
명절되면 설레는 무한홀릭 홈쇼핑
안방쇼핑의 룡련 스타, 국내 1호 쇼호스트 유난희

추모 기획
자상에 귀한 가르침 새기고 떠난
故 신영복 교수 삶과 철학

노충혼의 꿈의 여행
불가해한 공중도시,
페루 쿠스코 & 마추픽추

회가의 직업실
사회성담은 '신문 클라주' 작가 최요안

문화 단정
사랑받는 문화전당의 공간과 전시들

예향 초대석

왕성한 강연과 집필, 97세 현역 철학자 김형석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일이에요"

남도의 정인들
국내 유일의 접선 장인
접선장 김대석

사람이 브랜드다
군산항에서 흘러나온 풍자와 해학의 '특류'
군산 & 작가 채만식

스튜디오 예술교육원을 찾아서
여수 예술마루가 진행한 행복한 예술 멘토링

문학 화제
2016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3인의 문학이야기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추억과 삶의 예술이 있는 앙림동 펜션마을

문학 화제
새롭게 만나는 광주의 문화공간들

스타 데이트
"대본의 마라에 사로잡혔어요"
'오피셜' 후속 '시그널' 주연 맡은 김혜수